

‘중고 자전거’ 사랑 변함없네

광주·나주·순천·여수 2년간 중고물품 최다 검색어

검색어 1위 유지...냉장고·노트북·아이폰·의자 등 ‘인기’
광주 2위 ‘마스크’서 지난해 ‘캠핑’...‘스타벅스’ 신규 진입
2020년 여수 ‘낚시’ 2위...지난해 나주·순천 ‘골프’ 10위권

■ 광주 5개구 중고물품 인기 검색어

〈자료:당근마켓〉

순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1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2	마스크	캠핑	마스크	캠핑	노트북	캠핑	마스크	캠핑	마스크	캠핑
3	캠핑	냉장고	노트북	노트북	마스크	냉장고	캠핑	냉장고	캠핑	냉장고
4	노트북	노트북	캠핑	냉장고	캠핑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낚시	노트북
5	낚시	컴퓨터	의자	컴퓨터	의자	의자	의자	의자	노트북	의자

5위), 남구(6위), 북구(8위)에서 인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특수를 맞은 골프가 10위권에 새롭게 등장했고 ‘아웃 거레’를 부른 스타벅스도 신규 진입했다.

광주 5개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자전거가 1위를

모두 차지했고, 마스크 대신 ‘캠핑’이 전역에서 2위에 올랐다. 캠핑은 여수(2위)와 나주(4위)에서도 상위권이었던.

스타벅스는 동구를 빼고 남구·북구(각 9위), 서구·광산구(각 10위)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스타벅스가 단 하루 내놓은 다화용기

‘리유저블 컵’은 음료를 사면 공짜로 줘주는데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이 붙어 되팔리기도 했다.

최근 들어 대중에 문턱을 대폭 낮춘 골프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있는 나주(8위)와 순천(9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2년 연속 해외여행 길이 막힌 지역민들 사이에서 보복소비 심리가 골프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캠핑과 마찬가지로 여가활동 인기 거래물품인 낚시도 순천(2위), 광산구(6위), 남구·북구(각 8위), 동구(9위) 등에서 순위권에 들었다.

2년에 걸쳐 이 앱이 집계한 광주·전남 인기 검색어는 의자(쇼파),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콘, 오토바이 등이 있었다.

지난해 전국 검색어 수를 살펴보니 자전거가 약 272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1386만건)→캠핑(1327만건)→의자(1269만건)→노트북(1255만건)→컴퓨터(1153만건)→아이폰(992만건)→아이패드(965만건)→모니터(901만건)→골프(812만건) 등 순으로 많이 검색됐다.

전국 당근마켓 이용자는 2200만여 명으로, 월평균 16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20~64세 거주 인구(99만4000명)에 대비한 앱 이용자 수 비중은 75.2%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휘발유값 1700원 넘었다

한 달째 오름세...광주 1697.92원

광주·전남 휘발유 평균 가격이 32일 연속 오른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전남 평균가가 1700원을 넘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지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광주 1697.92원·전남 1701.54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각각 1.9%(30.86원), 1.5%(25.57원) 상승했다.

광주는 지난달 10일(1618.98원) 이후 34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오름 추세다.

전남은 같은 달 12일(1630.31원) 이후부터 32일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은 지난 12일 휘발유 평균가가 1700.08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7일(1702.82원) 이후 다시 ‘1700원대’에 접어들었다.

13일 현재 1당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긴 지역은 제주(1788원), 서울(1777원), 경기(1719원), 충북·대전(각 1715원), 충남(1713원), 인천·강원(각 1712원), 세종(1711원), 전북(1707원), 전남(1702원) 등 11개 시도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신규 매장을 열어 봄 상품 판매 체비를 마쳤다. 13일 광주신세계 신관에 입점한 캐주얼 브랜드 매장. 〈광주신세계 제공〉

유통가는 봄 마중

광주신세계 ‘코닥’ 등 신규 입점 롯데백, 매장 70% 봄 옷 진열

봄을 앞두고 광주 주요 백화점들이 세단장에 나섰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봄철을 맞아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이달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가 입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카메라 브랜드 ‘코닥’이 내놓은 의류 브랜드가 신관에 등지를 했다. 이 브랜드는 신규가입 회원에게 5% 할인을 제공하며 오는 17일까지 ‘코닥 인생네트’ 무료 촬영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광주신세계 신관에는 ‘스위치 123’ ‘벌브드’ ‘커버넌트’ ‘NFL’ 등 브랜드가 추가 입점한다.

앞서 이달 초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는 의류 브랜드 ‘듀베티카’ 임시매장이 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달 현재 의류 매장 70% 이상 봄 옷 진열을 마쳤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패스텔 톤 의류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설정책 실패로 대량 폐업 위기” 대규모 집회 예고

전문건설업계, 17일 국회·24일 세종청사 앞

전문건설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 7만 중소 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건설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단체는 공동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간 업무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들의 갈등을 조장할 뿐더러,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들을 대량 폐업 등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오는 17일 국회와 24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통령 후보와 국회,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

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건설 업계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적 동시 집회 등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좀비에 물려 사망하면 보험금 받아

생명보험사 “일반 사망 지급 가능...재해 사망 해당 안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영화 ‘부산행’처럼 좀비에 물려 죽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 지급 사유에 해당해 생명보험 가입 고객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12일 전했다.

좀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에서 2주 연속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은 충격적인 극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고등 학교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좀비 때문에 죽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재해 사망인지 일반 사망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 사망은 원인을 막론하고 죽게 되는 경우로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 개념이다. 재해 사망은 우발적 외래 사고 및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다.

생명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재해 사망에 감염병이 들어있어 좀비에 물리는 것도 감염병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등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해야만 재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2년 이내 자살 등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죽으면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좀비를 전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처럼 좀비가 전국에 퍼져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다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0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7	25	33	35	38	45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85
3	5개 숫자일치						3,193
4	4개 숫자일치						155,418
5	3개 숫자일치						2,436,676

광주전남중기청 R&D역량제고 참여 기업 모집

18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8일까지 ‘2022년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 기획지원 사업’과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R&D 기획지원 사업은 중기부 R&D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기획과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을 활용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이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